

# 「科總」에 바란다

## 科學技術政策의 助言者돼야



林 瑢 圭  
(科技處 原子力委員)

科總은 文字 그대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界의 團體를 연합한 本山이라 하겠다. 많은 科學技術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科學技術界를 大變하는 중심점을 찾아보려고 努力해온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같이 科學技術이 부각되어 그 重要性이 국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도 과거에는 드문일이라 보겠다. 이에 못지 않게 科學技術界의 지혜를 모아 무엇이 國家를 위하여 科學技術界가 解決하여야 할 課題이며 또한 앞으로의 方向도 提示하여야 된다.

聯合會도 국가의 科學技術政策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하며 반영되고 판철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提示를 하여주는 粘着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國家的 課題 解決능력 필요



李 殷 雄  
(韓國作物學會長)

10년이면 江山도 變한다고 했다. 그간 우리 科總도 많은 일을 해 왔으며 좋은 면으로 크게 變貌하여 왔다.

그러나 더욱 名實共히 우리나라 科學人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이제 個人別 能力發揮時代는 가고 오직 協同과 協力の 時代로 綜合된 技術로서만이 發展의 動力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 科總은 國家的 課題를 풀어나가야 할 팀의 組織과 그를 뒷받침하는 일에 온갖 힘을 써 주었으면 한다.

## 科學技術活動의 求心體로期待



車 宗 熙  
(韓國에너지研究所長)

科總은 과거 15개 성상을 헤아려 오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科學技術活動의 求心體로서 많은 활약을 하여왔다.

科總이 主催하는 國內外 韓國人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는 해를 거듭할수록 內實을 기하여 가는 것 같다.

이 모임이 우리나라 科學技術活動에 새로운 座標를 설정하여 주는 契機가 될 수 있도록 바라 마지 않는다.

科學技術 專門雜誌가 不毛인 우리실정에서 「科學과 技術」은 蠟燭과 같은 임무를 하여주고 있다. 이 雜誌가 우리 科學技術界에 새로운 方向

## 科學技術政策開發등活力要望



趙 炳 夏  
(韓國物理學會長)

科總은 會員團體들과 落後된 우리의 科學技術의 水準을 더 높이고, 民主的 結合을 加一層 발전시켜, 우리나라 科學者와 技術者의 所望을 集結함과 아울러 그들의 소리를 政治化시키는 努力을 現在보다 더 해야 할 것이다.

10萬 科學技術者가 科總의 會員임을 自覺케할 수 있는 施策이 아쉬우며 科學技術政策開發에 좀더 果斷性있는 活力이 要望된다. 研究開發政策 뿐만 아니라 廣義의 科學教育問題도 포함되기를 希望한다.

그리고 「科學과 技術」誌는 月刊에서 月2回

刊으로, 나아가 週刊誌로까지 발전시켰으면 한  
다. 科學과 技術에서의 發展相을 時事性 있게 알  
찬 내용으로 그 質을 더욱 높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國家研究課題 조속着手希望



金 始 源  
(韓國農工學會長)

科總이 出帆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名實共히 이 나라 科學技術人의 總代辯者로  
서 그동안 허다한 難關을 그때마다 슬기롭게 克  
服하면서 全國民科學化라는 共同目標을 向하여  
學術과 技術發展에 貢獻하여 왔다고 自負하고  
싶다. 그중에서도 各種 科學技術書籍編纂, 科學  
技術團體育成支援, 8次에 걸친 國內外韓國科學  
技術者綜合學術大會開催, 세마을 技術奉仕團  
活動等은 큰 業績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한가지 素望하는바는 지난해 科總에서  
研究하여 導出한 “國家研究課題”들이 하루속  
히 研究에 着手되도록 하여 이 나라 學術發展 및  
技術發展 나아가서는 國家發展에 寄與할 수 있  
도록 하여 주었으면 한다.

## 科學界 發展 主導해야



尹 張 燮  
(大韓建築學會長)

國力の 基盤이 그 나라의 科學  
技術에 依存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160여개의 學會 및 團體가 相互 有機的으로 團  
合하여 科學技術人의 對話의 廣場을 마련하고  
科學技術의 革新과 發展에 기여하는 일은 곧 우  
리나라의 繁榮과 福利를 增進시키는 原動力이라  
고 생각한다.

人生에 비유한다면 바야흐로 旺盛한 成長期  
에 들어서는 科總이 80代에는 그 機能과 活  
動이 括目하게 擴大되어 圓熟한 壯年期를 맞이  
하게 됨으로서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發展에  
主導的인 功獻을 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科總」에

## 代辯者的 機能 살렸으면



李 光 榮  
(韓國日報科學部次長)

과학기술계의 진정한 代辯者로  
서의 機能과 役割을 보다 살렸으면 한다.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인  
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폭넓게 귀를  
 기울여 이를 국가발전을 위한 科學技術政策樹  
立에서 遂行에 이르기까지 반영토록 하는 건전  
한 社會壓力團體(Social Pressure Group)로  
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다고 보기, 때  
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學會活動을 보다 活性化시키  
고 학회단위의 窓口를 통해 각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과학기술  
계의 폭넓은 輿論을 수집, 집약정리할 수 있는  
制度的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學會特性살린 支援아쉬워



崔 林 淳  
(韓國動物學會長)

科總이 創設된 이래로 科學技術  
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 학회 相互間의 유대관  
계를 갖게하고, 學會誌發刊支援, 海外科學者招  
請學術大會의 개최, 科學技術史의 편찬, 전국민  
의 과학화운동 전개, “과학과 기술” 雜誌發刊  
등 많은 업적을 쌓아올리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  
히 생각한다.

이에 덧붙여 한층 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加  
入學會의 발전을 위한 難關이 많으므로 이를劃  
一的으로 다룰것이 아니라 각 학회 나름대로의

# 바란다

靑寫眞을 받아 그 고충이 무엇인지를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힘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 會員育成에 더많은배려期待



河 英 洙  
(大韓看護學會長)

科總이 創立된지 어언 15년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과학기술 敎育과 科學技術開發 및 人力開發에서부터 나아가서는 國際技術協力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학기술 단체에 대한 폭넓은 배려와 지원으로 이땅에 과학풍토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한 과총관계자들의 지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더욱더 소속단체의 育成에 힘써줄것을 기대함과 아울러 과총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성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 學會支援事業 幅 넓혀야



林 定 圭  
(大韓藥理學會長)

科總이 創立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會員의 團結과 科學立國을 目標로 邁進하여온 슬기로운 勇氣를 讚揚하는 바이다.

그러나 쉬지않고 日進月步하는 科學分野를 代表하는 聯合會가 一律의인 事業展開만을 가지고 滿足할 것이 아니라 來日의 發展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時點에 이르지 않았나 본다.

弘報事業 같은 印象만주는 會誌發刊이나 發刊費의 一部만 充當할 수 있는 學會誌補助事業, 科學의날 記念式 같은 年例의인 事業外에 各學會團

體가 進取的으로 能動的으로 結果를 產出케 할 수 있는 事業을 後援 하는 데에도 눈길을 들릴때가 왔다고 본다.

## 하루속히 基金助成돼야



朴 益 洙  
(韓國科學史學會長)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行政府의 豫속기관 혹은 補助機關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 주기 바란다.

비판과 저항은 敵意에서도 하지만 友情이 있기에 그리고 友情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다.

모든 科學技術者와 모든 科學技術團體의 權益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協助도 하고 순종도 하지만 비판도 하고 저항도 하고 建議도 하는 活氣찬 獨自의이고도 자주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나 국가를 위하는 길이며 동시에 모든 科學技術者와 그 團體가 더욱 科總에 관심을 갖고 科總을 중심으로 뭉치는 科總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確信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조속히 獨自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금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世界的 學術大會 추진바라



朴 漢 奎  
(延世大工大敎授)

科總이 創立 15주년을 맞이함에 있어 지난 10여년동안 많은 업적을 성취하였지만 최근 2~3년 동안에 이룩한 공로를 중심으로 치하하면서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綜合學術大會를 倣年제로 在美와 在歐과학자 대회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다 世界的인 綜合學術大會로 격상시키기 바란다.

둘째, 외국의 기술자와 기능공의 技術訓練을 담당하기 위한 訓練員을 設立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 예술을 보급하고 체계적인 訓練計劃을 樹立하는 訓練機關을 시급히 設立했으면 한다.

(이상 原稿도착순)